

# “수능 자격고시화·외고 일반고 전환해야”

### 시·도교육감협의회, 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서 요구 교육부 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교육 개혁 빨라질 듯

세 정부의 교육 개혁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등 교육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특히 교육부 권한 이양을 비롯, 수능 절대평가 및 외고·자사고 폐지 등 시도 교육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교육 정책 상당수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교육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들어

현 정부의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도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등교육에 간섭해 왔다”면서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권한 이양의 경우 시도교육감들이 그동안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는 성명서 등을 통해 정부에 요구해온 교육 개혁을 위한 추진 과제 중 하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감들이 주장해

온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 개혁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 정부의 긍정적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시도 교육감들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왔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 초등교육 권한을 교육감들에 이양하면 지역별로 교육경쟁이 일어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 이전,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이후 개헌을 거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교육감협의회

가 요구해온 ▲수능 절대평가와 수능 최저 학력기준 폐지 등 대입제도 개혁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정 시·도 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감들도 이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로 올 7월 발표될 수능 개편안에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시화 제시, 교육부 권한 이양, 고교 무상교육,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학교 내진설계 문제 해결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쪽에서 김진표 위원장과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사회분과 위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문대통령 10년만에 6·10항쟁 기념식 참석 “6월 항쟁이 촛불 꽃피웠다”

30년 전 군사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은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1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행정자치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서울광장은 1987년 6월 당시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뒤 그해 7월9일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그의 영결식을 치른 장소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여야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과 여성·노동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함께 개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2007년부터 개최한 6월항쟁 공식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를 열었으나 올해에는 공동 개최됐다.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계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6

월항쟁에 뿌리를 뒀다는 의미도 올해 행사에서 중요하게 부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항쟁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6월항쟁 기념식 참석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6월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상임대표였던 지선 스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촛불혁명은 우리 국민이 수없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과 항쟁의 결과물로 세계인이 높이 평가한 시민혁명”이라며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 스스로 세상의 주인인 시민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이한열 열사 묘진 배은심 여사, 박종철 열사 친형 박중부씨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 이해학 목사, 한승헌 변호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연합뉴스

## 벼 재해보험 가입기한 9일→30일로 연장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오는 30일로 연장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은 9일이었으나 가뭄으로 모내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입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전남도가 정부에 가입 기한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전남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원을 확보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제 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ha당 순보험료는 약 45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9만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4만1000농가 6만여ha다. 전남도는 또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해 ‘유기농 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노벨평화상 기념관 찾은 日 특사

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왼쪽),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관에 들어서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 특사로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오른쪽 두번째)이 10일 목포시 만호동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의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왼쪽),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니카이 특사 “간계 꾸미는 일당 박멸해달라” 막말 파문

### 日총리 특사단 목포 공생원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단이 목포 공생원을 방문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 등 특사단은 11일 목포에서 방한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며 보육시설 공생원을 찾았다. 공생원은 ‘목포의 어머니’로 불리는 윤화자(1912~1968·일본명 다우치 치즈코) 여사가 3000여명의 고아를

돌보며 일생을 바친 곳이다.

윤 여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리의 동맹로 태어나 공생원 설립자이자 전도사였던 윤치호(1909~1951·한국전쟁 중 광주에서 행방불명) 선생과 결혼해 목포에 정착,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큰 역할을 했던 윤 여사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역사문제 해결 등 한일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쪽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사단을 맞이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목포에서 가까운 진도에는 임진왜란 때 전사한 일본 수군의 시신을 수습해 묘로 단장한 왜적산이 있다”며 “새로운 한일 관계와 미래를 위해서 양국이 좋은 역사를 발굴하고 교감하자”고 화답했다.

특사단은 12일 서울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아베 총리 전서를 전달하고,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니카이 간사장이 10일 박 전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간계를 꾸미는 일당을 박멸해달라”고 막말을 해 파문이 예상

된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카이 간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중의 간계를 꾸미는 일당은 박멸을 해야 한다”며 “한국 안에도 한중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원하면 박멸해달라”고 말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그동안 한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한 어조로 말해 바 있다. 그런 가운데 ‘간계를 꾸미는 일당’이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한일 합의의 재교섭을 주장하는 한국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연합뉴스

## 빛고을노인타운 이용객 1천만명 넘었다

### 2009년 개원 이후 8년만에 하루 평균 4000여명 이용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개원 8년 만에 누적 이용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11일 광주복지재단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누적 이용객은 1005만237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6월 10일 개원 이후 8년 만이다.

하루 평균 4000여명의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60세 이상 어르신만 등록이 가능한 회원 수는 6만8310명으로 광주시 노인 인구 3명 중 1명가량이 가입한 셈이다. 등록 회원 중 70대가 50.4%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80대 23.6%, 60대 22.8%, 90대 2.3% 등이다.

빛고을타운은 현재 90종 200여 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기몰이 비결은 5000원이면 종일 수많은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즐기고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데 있다.

평생교육과 자기 계발을 하는 학교의 기능, 재능나눔과 사회봉사 등을 실천하는 행복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프로그램 운영 등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대학,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지금까지 4만8000여명이 다녀갔다.

빛고을타운은 부지 11만7000여㎡에 전체면적은 2만9000여㎡이며, 사업비 690억원이 투입됐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각종 상담실, 민원실, 은행 등이 들어선 복지관과 서예실, 공연장, 도서열람실, 컴퓨터실, 어학실, 모듬강의실, 노래방 등을 갖춘 문화관이 자리 잡고 있다.

수영, 헬스, 배드민턴 등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과 4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목욕탕 등도 주요 시설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 062-364-8800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